

지역 소식통

정읍시농기센터, 생활자원 사업 우수성과 평가회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농식품 가공 분야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는 15일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참여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자원 분야 사업 성과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에서는 2022년 생활자원 농식품 가공 분야 6개 사업과 체험분야 3개 사업, 농작업 안전 분야 2개 사업에 대해 추진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사업추진 우수사례는 자이언트농업농조합법인과 모메존푸드랩(유), 알로에를 소재로한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 상품화한 알로에사랑농조합법인 이 발표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 제335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 및 처리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과 예산안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에게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정읍시, 대형화재 상황 가정... 인명구조·수습·복구 대응 등 통합 진행

정읍시는 대규모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관별 통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5일 2022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가스폭발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와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한 실전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제808 부대 4대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와 적십자봉사회, 인근 초·중·고 정읍아카데미 등 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은 신태인 실내체육관 선수촌 주방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로 체

육관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중상 6명, 경상 13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 현장 매뉴얼에 따라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별 현장 대응 조치에 대한 운영과 화재로 인한 인명구조와 구급 대응, 단체별 역할 분담과 수습·복구 대응 등이다.

또 훈련이 끝난 후에는 심폐소생술 사회, 인근 초·중·고 정읍아카데미 등 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은 신태인 실내체육관 선수촌 주방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로 체

이학수 시장은 "반복된 훈련과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상기하며 사회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군민행복 · 활력고창' 공약사업이행평가단 모집

체계 · 효율적 추진 위해 25일까지 15명 모집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수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와 자문 등을 담당할 공약이행평가단 15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대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틀을 이루는 6대 분야를 기준으로 분반을 나누어 신청을 받은 뒤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할 계획

이다.

평가단은 민선8기 군수 재임기간 동안 매년 12월 공약이행 현황과 사업비 확보 여부, 집행 비율 등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에 대한 요구 활동을 하게 된다.

개인이나 관련 단체의 이해를 벗어나 객관적 시각에서 군정을 평가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군민이면 신청 가능

하다.

신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군 기획에 산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성별비율, 군정참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심사 후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군정과 공약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정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논 · 밭두렁 태우기 무익' ... 부안 농어촌공, 영농 환경보호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진균)는 해충방제를 통해 논 · 밭두렁 태우기가 득보다 실이 많아 무익함을 전달하고자 영농 환경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진균)는 해충방제를 통해 논 · 밭두렁 태우기가 득보다 실이 많아 무익함을 전달하고자 영농 환경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특히 농한기가 되면 영농 잔재물을

정리하고, 논밭에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논 · 밭두렁을 태웠다. 이러한 관행이 산발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해충 방제효과도 낮아 득보다 실이 많다는 내용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전북도농업기술

원과 함께한 조사에 따르면 논두렁의 벼멸구 등 해충 비율은 4.9~9.1%에 불과한 반면, 거미류 등 익충 비율은 90.6~95.1%로 높았다. 논 · 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보다 익충을 잡는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 일반 농업지역과 친환경 농업지역 모두 논두렁을 태운 곳과 태우지 않은 곳의 해충 발생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부안지사는 농업 환경보호 활동에 더해 논 · 밭두렁 태우기 자제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진균 부안지사장은 "논 · 밭두렁 태우기의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만큼, 농업 폐기물은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소각은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논 · 밭 태우기 자제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성공적 축제방안 · 개선점 논의

정읍시, '제15회 구절초 꽃축제 평가회' 가져

정읍시와 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강연천)가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구절초 테마공원을 탄탄한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지난 14일 제2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는 올해 열린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내용을 청취해 우수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구절초 꽃축제는 10월 1일 개막식(개장 9월 29일)을 시작으로 10월 16일까지 열렸다.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대외에 첫선을 보인 이번 축제는 기존 구절초 경관을 비롯해 그간에 정비된 정원의 다양한 경관과 시설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화를 위해서는 음식 선진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내권 맛집 참여 확대와 특색있는 메뉴 발굴, 음식 판매장의 소수 정예화, 서비스와 위생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MZ 세대 등 젊은 계층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색있는 포토존 설치와 전디광장 등 공간 활용 심터 조성, 트렌디한 먹거리와 체험거리 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다음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절초 지방정원의 안전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축제와 정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구절초 꽃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 30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74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의 홍보와 지방정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대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선운산 도솔폭포 앞 무장애 데크길 연장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의 도솔제 경관폭포와 연계한 무장애 데크길 연장설치와 폭포앞 소공원 공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폭포앞 데크광장 설치와 쉼터를 조성해 폭포를 감상하면서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기존 선운산 도솔제 쉼터까지만 이어진 데크길을 폭포 바로 앞까지 연장해 접근성과 보행성을 높여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방문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고창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 및 폭포 앞 소공원 조성 및 무장애 데크길 설치로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